

## \*\*마리오 보타 작품에서 보여지는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in the Works of Mario Botta

- Focused on Public Buildings -

김용립\* / Kim, Yong-Rhip

### Abstract

Mario Botta is one of the modern architects who established his own architectural world on the basis of the architectural spirit of Modernism. His works have been a good theme not only for those who study architecture but also for those wh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re have been many published papers and reports on his works. However, most of them stressed on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appearance of architecture 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that have dealt intensively with interior spa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in public buildings that were designed by Botta and to analyze them from the view of design principles and design elements. For this purpose, the five most important public buildings were selected and the public space of the buildings like the central hall, the lobby, and the foyer wer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realized.

A) Spatial features: ① Refined and graceful interiors where the principle of symmetry was applied, ② Centripetal interiors surrounded by thick walls, ③ Interior design lit by skylights above the central area, B) Formative features: ① The shap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are identical, ② Simple geometrical shapes were applied in defining the shapes of internal spaces, ③ Skylights and light wells were combined and were utilized as form elements, ④ Architectural vocabularies of Corbusier such as stairs, round pillars, and bridges were developed and utilized, ⑤ Utilized the geometry that resembled his architecture as a form element to the furniture, C) Material pattern features: ① Plainly expressed the patterns of bricks that appear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② Made and used horizontal stripe patterns using stones of different colors.

키워드 : 마리오 보타, 실내공간구성

### 1. 서론

모더니즘의 건축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건축으로 발전시킨 미국의 건축가로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와 찰스 구아쓰미(Charles Gwathmey)를 들 수 있다면 이것을 기초로 자신의 건축세계를 구축한 유럽의 건축가로는 마리오 보타(Mario Botta)를 꼽을 수 있겠다. 스위스의 티치노 지방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건축의 기초를 익힌 마리오 보타는 티치노 지역의 건축적 정서 위에 세 사람의 스승,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와 루이스 칸(Louis I. Kahn),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로부터 배운 건축사상과 원칙을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을 선보여왔다.

중세 유럽의 역사적 건축물과도 같이 벽돌로 두텁게 축조되는 보타의 건축은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의 볼륨(Volume)과 장식과 상징으로 가득한 외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같은 그의 건축은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과 조화되어, 스스로를 위하여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게 되며 주변환경을 위

\* 정회원,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 본 연구논문은 2001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하여는 위치나 방향을 파악케 하는 지형지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보타 건축의 외관을 특징짓는 기초적 형태의 볼륨은 내부적으로는, 그의 건축의 실내형태를 정의하게 된다. 즉 밖에서 보여지는 볼륨의 형태는 꾸며지지 않고 실내에 전달되어 내부공간의 형태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두터운 외벽으로 둘러지는 보타의 실내는 흔히 강한 '중심성을 지닌'<sup>1)</sup> 실내로 표현되며 중심영역 상부에는 천창이 계획되게 되는데 천창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혀지는 그의 실내는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빛을 받는다, 다른 현대건축가의 실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건축의 축조법을 존중하며, 상징성이 강하면서도 현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타의 건축은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건축과 주변환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실제로 그의 작품을 연구한 많은 논문과 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보타 작품에 관한 연구는 건축 외관이나 건축과 주변환경의 관계에 편중된 느낌이며 실내공간을 밀도있게 취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타에 의해 설계된 작품의 실내를 구성 방식과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찾아내는 데 있다. 연구대상 작품으로 넓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공공건물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작은 규모의 주택과 비교하여 커다란 공용공간을 갖는 공공건물에서 보타 자유롭고 적극적인 실내디자인 작업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물을 고르게 취급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대표가 될만한 작품을 하나씩 택하였으며 선정된 학교, 도서관, 은행, 교회, 미술관 작품에서는 중앙 홀과 로비(Lobby), 포여(Foyer)와 같은 공용공간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졌다.

## 2. 건축사상과 건축의 특성

실내공간을 분석할 때 건축과 실내를 구별하여 실내공간만을 따로 취급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외부 볼륨을 한정하는 동일한 요소에 의해 실내의 형태가 정의되는 보타의 작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보타의 실내공간 분석에 앞서 보타의 건축교육 배경과 건축사상, 건축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일은 불가결한 일이라 하겠다.

### 2.1. 향토건축과 세 사람의 스승으로부터의 교훈

#### (1) 티치노의 역사적 건축으로부터의 교훈

마리오 보타는 1958년, 15세의 나이로 티타 칼로니(Tita Carlomi)가 이끌던 스튜디오에서 견습생으로 건축설계의 기초

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티타 칼로니는 당대 스위스의 젊은 건축가를 대표할만한 인물로 '브루노 제비(Bruno Zevi)의 유기적 건축'<sup>2)</sup>에 영향을 받은 한편 티치노 지역의 문화와 지역적 환경을 존중하는 건축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칼로니의 견습생으로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건축을 배우기 시작한 보타는 자연스럽게 티치노 지방의 역사적 건축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그 지역에 남아있던 로마네스크 풍의 사원과 이탈리아 풍의 향토적 주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비록 장식의 면에서 보잘 것 없고 단순하지만 '관계에서의 조화, 리듬, 균형, 비례와 같은 고전적 건축의 규범'<sup>3)</sup>에 충실하며 육중한 조적 구조물로서 '존재감'<sup>4)</sup>을 뚜렷이 나타내는 로마네스크 사원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로마네스크 사원에서부터의 교훈은 보타가 자신의 건축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된다. 보타는 또한 지역의 역사적 건물과 향토적 주택에서 보여지는, 장인정신이 담긴 섬세한 조적 기법과 '아케이드(Arcades) 및 로지아(Loggie)<sup>5)</sup>에 주목하였는데 이 같은 지역건축의 기법과 어휘 또한 '재해석'<sup>6)</sup>의 과정을 거쳐 그의 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요소로 발전하게 된다.

#### (2) 르 꼬르뷔제로부터의 교훈

건축수업을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간 보타는 1965년, 르 꼬르뷔제의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베네치아 연구학회'의 회원이 되면서 꼬르뷔제의 작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회 회원이 된 보타는 연구활동의 하나로 베니스 병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며 이어 파리의 꼬르뷔제 스튜디오에서 꼬르뷔제의 작품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모더니즘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스승의 작품을 연구하는 동안 그는 꼬르뷔제의 합리적 사고와 설계원칙, 조형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정육면체나 원통, 원뿔, 사각뿔과 같은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sup>7)</sup>를 통해 이상적인 건축형태에 접근하고자 했던 꼬르뷔제의 생각은 후에 보타의 건축에 계승되어 형태를 짓는 기본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보타는 꼬르뷔제의 '건축적 어휘'<sup>8)</sup>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건물요소의 배치, 재료의 표현 등 건축형태와 관계된 논리를 습득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꼬르뷔제로부터 취한 설계기법과 건축적 어휘는 1967년에 완공된 스타비오 주택(Single-Family House, Stabio)에서 찾을 수

1)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흥기 역, 서울:기문당, 1992, p.43. '중심성을 지닌' 실내는 각 공간이 '자신만의 중심'을 갖도록 계획된 칸의 실내와 유사함.

2) Ibid, p.26.  
3) Molinari, Luca ed., Mario Botta / Public Buildings, Milan : Skira, 1998, p.208.  
4) Dal Co, Op. cit., p.75.  
5)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oy : A.D.A. Edita, 1984, p.10.  
6) Loc. cit.  
7) Huse, Norbert, Richard Meier Museum für Kunsthandwerk Frankfurt am Main, Berlin : Ernst & Sohn, 1985, p.9. 꼬르뷔제는 이 같은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축형태를 찾고자 하였음.  
8) Dal Co, Op. cit., p.35.

있는데 층별 세부공간의 배치, 형태요소로 계단과 굴뚝의 활용, 거친 콘크리트 표면의 표현 등은 꼬르뷔제의 설계기법과 어휘를 잘 반영하고 있다.

### (3) 루이스 칸으로부터의 교훈

1969년, 루이스 칸의 베니스 회의장(Palazzo dei Congressi) 계획의 전시를 돕던 보타는 건축적 사고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여준 또 한사람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유리와 금속같은 얇은 벽재를 사용하던 그 시대의 다른 건축가와는 달리 칸은 콘크리트나 벽돌과 같은 두터운 벽재를 선호하였는데 그의 작품에서 두텁고 육중한 벽재로 분할되고 한정되는 공간은 '자신만의 중심'<sup>9)</sup>을 갖도록, '자신만의 독특한 빛'<sup>10)</sup>을 제공받도록 계획되어졌다. 그의 작품에서는 '서브받는 공간(Served Space)<sup>11)</sup>'과 '서브하는 공간(Servant Space)<sup>12)</sup>'의 위계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보타는 이와 같은 칸의 작품에서 티치노 지방의 역사적 건축에서 보았던 근원적 모습의 건축을 발견하게 된다. 칸의 작품과 티치노 지방의 향토적 건축 사이의 유사성은 로지아의 사용에서도 보여진다. 칸의 작품에서 로지아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 실내공간과 옥외공간 사이의 대립을 조정하는 '매개공간'<sup>13)</sup>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매개는 기하학적 형태의 커다란 개구부에 의해 외부세계와 연결되어 진다. 로지아에 적용된 기하학적 형태의 개구부나 콘크리트 보로 보강된 커다란 아치는 칸에 의해 발전된 건축적 어휘로 보타는 이와 같은 칸의 건축적 어휘에서 역사적 건축의 기본형태가 '경이의 감각(The Sence of Wonder)<sup>14)</sup>'으로 재해석되어져 새로운 건축으로 탄생하는 모형을 보았다.

### (4) 카를로 스카르파로부터의 교훈

보타가 꼬르뷔제로부터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 사고와 형태의 논리를 배웠다면 카를로 스카르파로부터는 모더니즘 건축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표현적 기교를 배웠다고 할 수 있겠다. 베니스 건축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보타는 졸업작품의 지도와 심사를 맡은 스카르파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스카르파는 모더니즘 건축의 기술적인 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표현적 측면은 부정한 작가로 기능과 효율, 기술을 우위에 두고 장식, 표현, 상징의 유용성을 인정치 않는 시각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표정없고 빈곤한 건축을 극복하기위하여 과거의 건축으로 눈을 돌렸는데 과거의 건축에서 그가 찾은 것은 숙련된 '기교'<sup>15)</sup>와 그것이 집약된 '상세'<sup>16)</sup>였

다. 과거 건축의 기교와 상세에 대한 집요한 연구는 그의 작품 성향을 조화로운 전체를 구하기보다는 '부분'<sup>17)</sup>의 상세한 표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한편으로는 과거 건축을 회상케하는 '건축 기호'<sup>18)</sup>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스카르파의 작품에서 보타는 다른 모더니즘 건축에서 찾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2. 건축사상

보타의 건축을 생각할 때, 그의 작품이 장소성이나 표현성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보타는 티치노의 역사적 건축에서 보았던 고전적 규범을 존중하였으며 꼬르뷔제로부터 터득한 '건축적 형태의 논리'<sup>19)</sup>나 공간구성의 원칙을 결코 잊지 않았다. 특히 기하학적 볼륨의 연구를 통한 합리적 형태로의 접근, 프로그램의 요구를 따르는 '자유로운 평면'<sup>20)</sup> 등 꼬르뷔제의 원칙과 방법은 보타의 작업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켜졌으며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벽돌이라는 역사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보타의 건축이 모더니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데에는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 해결방식을 존중하는 보타의 작업태도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만약 공간과 형태의 문제에서 합리적, 논리적 해결방안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였다면 보타의 건축은 오늘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보타의 작품에서, 기하학적 형태로 절개된 커다란 개구부나 섬세하게 다듬어진, 반복되는 작은 창은 칸과 스카르파로부터 이어받은 건축적 어휘로 이들은 보타의 건축에 독특한 표정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축적 어휘라 하여도 과거로부터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깨우쳐준 두 스승의 가르침과 비교한다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 과거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무엇을 발명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먼 옛날의 깊은 비밀을 찾아내는 일'<sup>21)</sup>과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타의 건축적 목표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거의 것을 재해석하는 일이었으며 과거의 건축에서 '유효한 것'<sup>22)</sup>을 찾아 자신의 '표현적 에너지'<sup>23)</sup>와 결합시키는 일이었다.

17)Ibid., p.208. 스카르파 작품에서 부분은 조화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보다 전체와 구별된 개체로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가져다줌.

18)Dal Co, Op. cit., p.50.

19)Ibid., p.34.

20)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is., 로 꼬르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 집문사, 1991, Vol.1, p.125.

21)Molinari, Op. cit., p.207. '경이의 감각'으로 과거를 보고자한 칸의 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2)Ibid., p.206.

23)Loc. cit.

9)A+U, Louis I. Kahn, 이강훈 역, 서울 : 도서출판 잡음, 1985, p.9.

10)Loc. cit.

11)Loc. cit.

12)Loc. cit.

13)Dal Co, Op. cit., p.42.

14)A+U, Louis I. Kahn, Op. cit., p.9.

15)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 태림문화사, 1988, p.35.

16)Ibid., p.21.

스위스 티치노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한 보타에게 자신의 건축과 자연환경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다. 보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방향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욕구’<sup>24)</sup>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기를 원하였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의 건물과 주변환경의 관계가 ‘대립’<sup>25)</sup>의 관계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타는 이와 같은 대립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코르뷔제와 칸, 스카르파로부터의 교훈을 지혜롭게 활용하였다. 정육면체나 원통, 원뿔과 같은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건물이 쉽게 눈에 띄이는 건물이 되게 하였으며 원과 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개구부와 상세하게 처리된 일련의 작은 창을 기용함으로써 자신의 건물이 자신만의 고유한 표정을 갖게 하였다.

### 3. 실내공간 분석

#### 3.1.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도시의 인공적 환경과 자연환경 사이에 상징적 ‘경계’<sup>26)</sup>로서 제안된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Middle School, Morbio Inferiore, 1972)에는 외관과 실내구성에서 루이스 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각상자형 볼륨의 반복, 로지아를 활용한 볼륨의 절삭, 중앙 갤러리(Central Gallery)의 오픈과 천창의 기용 등은 칸의 작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성 방식으로 보타는 칸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교육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실히 해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sup>27)</sup>를 세우고자 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그림 1>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는 공간의 중앙부에 천창을 두며 공간의 수직성을 강조하는, 공공건물에서의 보타 실내 특성이 보여지기 시작한 작품으로 실내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1) 실내공간

학교의 주 건물은 남북방향의 일직선 축선상에 배열된 8개의 상자형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으로 의도된 8개의 볼륨 중 남측 끝 볼륨을 제외한 7개의 볼륨은 각각 1층에 현관홀과 교직원실, 2층에 일반교실, 3층에 특별교실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7개 볼륨은 또한 중앙에 3층 높이로 트인 오픈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중앙부가 수직으로 트인 기본 볼륨을 직선상에 배치하는 방식은 실내구성상 공간의 단절과 연결이라는 특별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림 2>는 사각형 개구부를

24)Futagawa, Op. cit., p.8.

25)Dal Co, Op. cit., p.63.

26)Ibid., p.64.

27)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1, Zurich : Artemis, 1993, p.38.

갖는 벽에 의해 분절된 중앙 갤러리가 그 벽의 개구부를 통해 다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연차적으로 펼쳐지는 실내공간이 중앙 ‘소점’<sup>28)</sup>을 향하여 점차 소멸되어 가는 듯 한 효과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실내구성의 핵은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 갤러리에서 찾을 수 있다. 직선축에 의해 꿰어져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는 중앙 갤러리는 개별적으로는 3층 높이로 트여져 있어 공간의 수직성을 드러내게 되며 그러한 수직성을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일광에 의해 더욱 강조되게 된다. 중앙 갤러리를 거닐며 사람들은 잘 짜여진 도심을 산책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 (2) 천창과 자연광

주 건물 안에 계획된 여러 공간들은 각각 그 공간을 위하여 디자인된 고유의 채광원을 갖고 있다. 중앙 갤러리의 커다란 천창이 갤러리를 위하여 디자인되었다면 외벽의 상부를 장식하는 차양 모양의 수평 창과 지붕에 계획된 좁고 긴 천창은 3층의 특별교실을 위해, 커다란 유리벽은 일반교실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관 건물에서 보여지는 여러 형식의 채광원 중에도 중앙 갤러리 상부의 커다란 천창은 단순한 채광수단의 차원을 넘어 실내형태를 정의하는 조형요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삼각형을 도치시켜놓은 모양으로 중앙부가 끝이 되고 양 가장자리가 마루가 되도록 디자인된 천창은 3층 높이로 트여진 수직공간이 단조로운 사각 상자형 공간을 벗어나 조형적 긴장감이 부여된 활기있는 공간이 되게 한다. <그림 2> 다른 채광수단들이 정해진 특별한 공간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과는 달리 중앙 갤러리의 천창은 갤러리 외에 각층의 교실과 교직원실에 일광을 전달하고 있다. 이때 갤러리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는 일광을 전달하기 위한 광정(Light well)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본관, 중앙 갤러리의 공간 구성은 1960년 루이스 칸에 의해 설계된 브린 모어 대학 기숙사(Eleanor Donnelly Students' Residence, Bryn Mawr College), 중앙 홀의 구성을 차용하고 있는데 보타는 갤러리 중심부에 커다란 천창을 뒹으로써 자신의 갤러리와 칸의 홀을 구별하고 있다. 브린 모어 대학 기숙사의 중앙 홀은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의 중앙 갤러리와는 다르게 홀의 가장자리에 4개의 작은 천창을 갖고 있다. <그림 3>

##### (3) 실내의 형태요소

‘어떤 건축적 요소들을 첨가하기보다는 삭제하는 것을 선호하는’<sup>29)</sup> 보타의 조형작업에서 로지아와 포티코(Portico)는 훌륭한 작업수단이 되어준다.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의 로지아와 포티코 역시 그러한 예로 볼 수 있겠는데, 주 건물의 상자형 기본 볼륨은 크게 3가지 작업, ① 양측면을 깎아 로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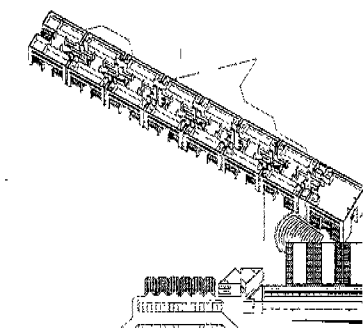
28)Dal Co, Op. cit., p.40.

29)Ibid., p.49.

나 포티코를 두는 작업, ② 볼륨의 중앙부를 깎아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작업, ③ 'M'자 모양으로 고안된 천장을 이용하여 오픈 스페이스 상부를 덮는 작업에 의해 조형적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그림 4> 이와 같이 그 조형성을 기본 볼륨에 의지하고 있는 주 건물의 실내에서는 중앙 갤러리의 벽과 계단 외에 특별한 형태언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 갤러리 벽은 대부분 다른 벽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벽으로서 벽 자체가 갖는 고유한 형태와 비례로써 실내형태에 기여한다.

(4) 재료와 패턴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주 건물은 재료의 사용에서도 브린 모어 대학 기숙사를 참조하고 있다. 거푸집의 접합선이 살아있는 노출 콘크리트 벽이나 아래층에서는 소란반자(Coffered Ceiling)로 보여지는 콘크리트 바닥판은 브린 모어 대학 기숙사의 벽과 바닥판을 옮겨다 놓은 듯 하다. 특별한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는 주 건물의 실내에서 거친 콘크리트 면은 어느 재료보다도 보타의 조형적 실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콘크리트의 접합선은 벽면을 적절한 비례로 분할하여 주며 공간의 스케일과 어울리는 적절한 크기의 패턴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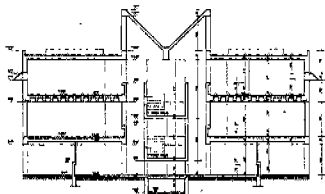
<그림 1>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엑소노메트릭



<그림 3> 브린 모어 대학 기숙사 중앙홀



<그림 2>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중앙 갤러리



<그림 4>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 단면도

3.2. 루가노 카푸킨 도서관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1976년 설계가 확정된 루가노, 카푸킨 도서관(Library of Capuchin Convent, Lugano)은 대지의 지형

및 기존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하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도서관은 크게 '육각형'<sup>30)</sup> 모양의 열람실과 긴 사각형 형태의 서고,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구성된다. 납작한 육각형 모양의 열람실이나 길게 늘려진 사각형 형태의 서고는 대지의 생긴 모양과 기존건물의 배치, 주어진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끌어낸 것으로 이것은 보타 건축의 형태가 형태를 위한 피상적 형태가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 형태임을 입증해 준다. <그림 5> 카푸킨 도서관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그것을 오히려 디자인의 발판으로 삼는 보타의 능력을 볼 수 있다.

(1) 실내공간

대부분의 보타 작품은 다른 모더니즘 작가의 작품과는 달리 대칭적 구성을 보인다. 카푸킨 도서관도 그러한 작품의 하나로 평면의 형태에 뿐 아니라 구성요소 배치에 대칭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먼저 평면의 형태가 진입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며 두 개의 원기둥, 양팔을 편 난간 벽, 발코니 양끝의 계단 등 모든 구성요소가 대칭으로 배치되었는데 보타는 실내공간을 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실내의 특유한 이미지와 수도원의 엄격한 느낌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5, 7> <그림 7>은 도서관의 중심이 되는 열람실의 중앙 홀을 보여준다. 2층 높이의 열람실은 양 측벽을 따라 계획된 발코니에 의해 부분적으로 2개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천장을 갖는 높고 넓은 중앙 홀과 어둡고 낮은 발코니 영역의 공간적 대비가 뚜렷하게 보여진다. 정기간행물 열람실로 쓰이는 발코니에서는 천장을 통해 밝혀지는 중앙 홀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발코니 맞은편 벽, 정면벽은 '이중 벽'<sup>31)</sup>으로 외측 벽은 콘크리트의 구조벽이, 내측 벽은 시멘트 블록의 치장벽이 된다. 보타는 여기서 외측의 치장벽과 내측의 구조벽을 바꾸어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지하공간으로서 외부 파사드를 가질 수 없는 카푸킨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즉 거친 콘크리트 벽면 대신 하얗게 칠하여진 블록벽을 실내에 노출시킴으로서 외부 파사드를 실내에 실현하고 있다. <그림 6> 지하에 계획된 일광이 충분한 열람실은 보타 건축에서 실내공간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2) 천장과 자연광

카푸킨 도서관의 열람실은 홀 중앙에 계획된 커다란 삼각형 천장 뿐 아니라 양 측벽의 끝, 모서리에 계획된 작은 사각뿔 천장에 의해 자연광을 공급받는다. 이들 천장은 열람실을 구성하는 여러 건축적 요소들 중 그 형태를 지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요소로 자연광과 함께 지상의 자연경관을 열람실에 전달해 준다. 작은 사각뿔 천장은 모서리를 오려낸 수법에서 스카르파의 천장을 닮아 있어 스카르파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그림 8>

30) Jodidio, Philip, Mario Botta, Köln : Taschen, 1999, p.50.  
31) 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2, Basel : Birkhäuser, 1994, p.8.

삼각형과 사각형 천장은 또한 수평면 천장에 3차원적 변화를 주는 형태요소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 보타는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면벽을 하얗게 처리함으로써 정면벽이 일광의 반사판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3) 형태요소

벽면으로부터 독립된 기둥이나 주변의 다른 벽과 분리된 벽은 보타의 실내를 활기있게 하여주는 조형요소가 된다. 카푸킨 도서관의 열람실에서도 이와 같은 기둥과 벽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중심축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된 원기둥이나 발코니 난간 벽은 간결한 형태를 드러내어 공간을 활기있게 한다. 특히 아래층의 자립하는 벽과 일체가 되는 난간벽은 중앙 홀을 감싸 듯 팔을 벌린 모양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7> 두팔을 벌린 난간벽은 정면벽에 대한 대응으로 여기에서는 마주보는 두 요소를 대화하게 하는 보타의 구성수법을 읽을 수 있다. 정면벽의 중앙을 가르는 '연직으로 파인 홈'<sup>32)</sup>은 공사기법을 존중하며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스킨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6>

(4) 재료와 패턴

흰색의 시멘트 블록 벽과 옅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 둘러지며 바닥에는 갈색 매트가 깔려있는 카푸킨 도서관의 열람실은 밝고 단정한 실내가 된다. 보타는 시멘트 블록 벽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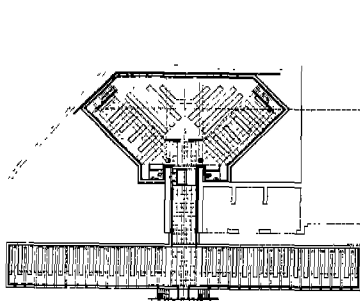
얇게 칠함으로써 블록 벽의 규칙적인 리듬은 유지한 채 색상만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경시켰다. 열람실의 가구는 밝게 처리된 벽과는 달리 검정색을 띠고 있는데 가구의 검정색은 밝은 주조색과 대비되어 실내에 강세를 준다. 흰벽과 검정색 가구 사이에서 중간조정자의 역할을 하고있는 바닥의 갈색 매트는 열람실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며 난간의 목재 손스침과 협조하여 차가운 실내 분위기를 완화시켜 준다.

3.3. 루가노 고타르도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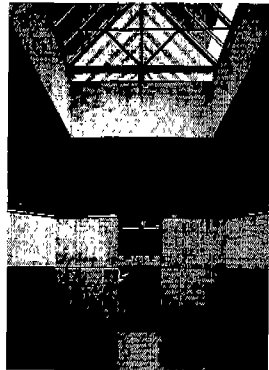
루가노 고타르도 은행(Banca del Gottardo, Lugano, 1982)은 전면도로를 따라 나란하게 배열된 4개의 삼각형 볼륨으로 구성된다. 입구에서 볼 때 역삼각형 모양이 되는 기본 볼륨은 각각 도로를 향해 우뚝 선 탑과 같은 입구를 갖고 있는데 코트 야드를 사이에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탑과 같은 입구는 규칙적인 운율을 생성하며 주변 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켜준다. <그림 9> 은행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시시설의 일부'<sup>33)</sup>로 본 보타의 시각은 은행의 실내설계에도 투영되어 나타난다. 특히 영업장(Banking Hall)은 은행을 대표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라 하겠는데 6층 높이의 중앙 보이드(Void)를 가질 뿐 아니라 대리석, 우드 패널 등 고급스러운 재료로 마감된 영업장은 시민들에게 일반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실내를 경험하게 한다. 고타르도 은행의 영업장은 공간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가구와 고급스런 마감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리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나 카푸킨 도서관의 실내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1) 실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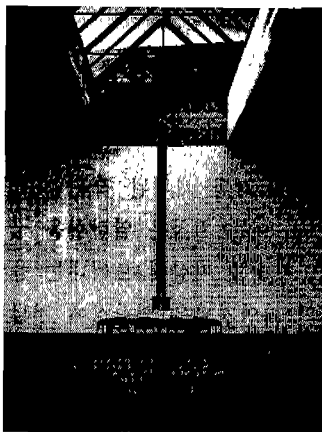
기하학적 형태의 기본 볼륨을 직선의 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한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으로부터 이어받은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타 작품에 기용된 기본 볼륨은 해를 거듭하며 복잡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좌우에는 코어(Core)를 두며 전면에는 탑 모양의 입구를 갖는 고타르도 은행의 기본 볼륨 역시 세 모서리에 작은 사각형 요소가 합성된 삼각형 모양으로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같은 기본 볼륨은 외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내공간의 형태를 정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영업장은 나란히 배열된 네 개의 기본 볼륨 중 한 곳의 1층에 계획되었다. 대체적으로 외벽에 의해 정의되는 영업장의 평면형태는 입구에서부터 내부로 침투한 뾰족한 벽에 의해 세밀한 형태를 조정받게 된다. <그림 10> 이렇다 할 간막이 벽을 갖지 않는 영업장은 수평으로 퍼진 넓은 공간으로 표현되며 폭에 비해 낮은 천장에 의해 수평성이 강조되게 된다. 영업장의 공간적 특성은 수평공간과 수직공간의 교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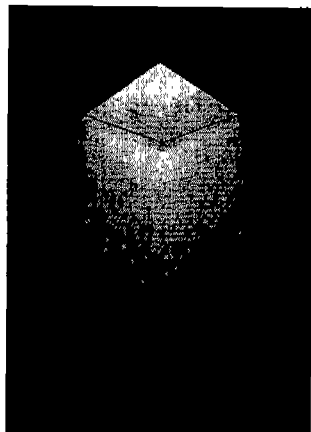
<그림 5> 카푸킨 도서관 평면도



<그림 7> 카푸킨 도서관 중앙홀



<그림 6> 카푸킨 도서관 열람실의 중앙홀



<그림 8> 카푸킨 도서관 사각형 천장

32) Dal Co, Op. cit., p.11.

33) Pizzi, Op. cit., Vol.1, p.213.

서 찾을 수 있겠다. 중심부에 계획된 좁고 높은 수직공간, 삼각형 모양의 보이드는 수평이 강조된 영업장과 대비되어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앞의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배치된 구성요소들은 보타 실내 특유의 형식적 공간의 특성을 유지시켜 준다.

(2) 천창과 자연광

고타르도 은행의 영업장은 강한 중심을 갖는 평면형태에서, '중심부로 떨어지는 빛'<sup>34)</sup>의 채광방식에서 보타 실내의 특성을 잘 설명해준다. 보타 실내의 매력은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작품마다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조형해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고타르도 은행에서 천창은 끌어들인 일광을 6층 높이로 트인 수직 보이드를 통해 실내 여러 곳에 전달하게 되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절삭된 좁고 높은 보이드는 영업장에서 저만의 독특한 조형적 가치를 발생시킨다. 영업장의 보이드는 이와 같이 빛을 전달하는 광경으로서 뿐 아니라 형태를 지배하는 조형요소로서, 깊이감을 창출하는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1> 수직 보이드의 형태는 특히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림 10>에서 빛을 받는 2층 난간과 대조된 어두운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을 포함하는 삼각형 보이드의 우아한 형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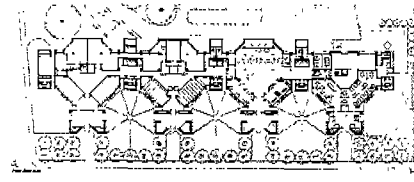
(3) 형태요소

모르비오 인페리오레 중학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타의 실내에서 벽들은 때때로 독립적인 요소로서 실내구성에 기여하게 된다. 고타르도 은행에서는 입구 맞은편의 정면벽과 입구 양측의 측면벽이 그러한 예가 되는데 특히 긴 사각형의 정면벽은 그 안정된 비례로 홀에 배치된 가구들의 훌륭한 배경이 되어준다. <그림 12> 벽체로부터 분리된 기둥 또한 공간에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는 요소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넓은 천장을 떠받치는 네 개의 원형기둥과 입구를 지키는 두 개의 원형기둥은 각각 가볍고 육중한 비례로 실내의 균형을 유지하여 준다. 입구 양측의 기둥은 매끄럽게 처리된 돌로 마감되어 조형요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앞의 두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형요소가 보여지는데 보타에 의해 디자인된 카운터가 그것이다. 창구업무를 위해 디자인된 카운터는 그 형태와 존재의미에 있어서 보타의 건축을 닮아 있다. 스타비오 주택을 연상케 하는 원형의 카운터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적용한 볼륨, 수직의 절삭부를 축으로 대칭되는 구성, '수평 띠'<sup>35)</sup>를 두른 패턴에서 그의 건축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의 건축이 도시공간에서 그러하듯 원형의 카운터는 영업장에서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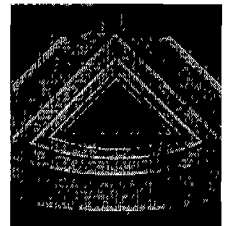
(4) 재료와 패턴

34) Dal Co, Op. cit., p.100.  
35) Futagawa, Op. cit., p.13.

이렇다 할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앞의 두 작품과 비교할 때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 대리석과 목재 천장판, 우드 패널을 사용한 고타르도 은행 영업장은 한층 격조있는 실내가 된다. 매끄러운 대리석은 1977년 설계된 프리버그 연방은행(State Bank, Freiburg)의 영업장에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은행의 실내설계를 계기로 보타가 특별한 마감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내재료의 적용에는 외벽의 장식기법이 보여지기도 한다. 서로 다른 색조의 돌을 교대로 붙여 띠를 형성한 입구 양측의 원형기둥과 얇게 썬 목재를 활용하여 가늘고 긴 띠를 만든 카운터의 장식기법은 고타르도 은행 및 리고르네토 주택(Single-Family House, Ligornetto, 1975)의 외벽 장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법을 통해 장인의 기교를 존중하는 보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0, 12> 기둥과 가구의 수평면은 또한 폭에 비해 천장이 낮은 실내공간의 수평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닥재로 쓰인 판석은 긴 사각형 모양으로 사선방향으로 깔려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판석은 패턴의 방향이 실내를 향하고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내부로 유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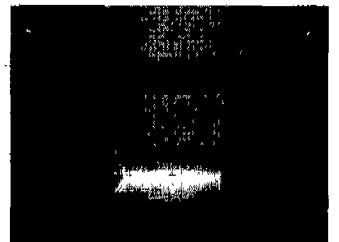
<그림 9> 고타르도 은행 배치도



<그림 11> 고타르도 은행 수직 보이드



<그림 10> 고타르도 은행 영업장



<그림 12> 고타르도 은행 영업장

3.4. 포르데노네 교구교회

원추, 직육면체, 원통 등의 요소를 결합한 모양으로 형태 면에서 주변의 건물과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포르데노네 교구교회(The Church of Odorico, Pordenone, 1987)에서, 보타는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로부터 이상적인 건축형태를 찾고자 하였던 코르뷔제의 형태관으로 돌아온 듯 보여진다. 포르데노네 교회는 크게 회랑에 의해 둘러진 사각형 뜰과 예배실의 사면을 한정하는 납작한 사각상자형 볼륨, 그 것을 기초로 하늘을 향해 불쑥 솟아오른 원추형 지붕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림 13>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정점 부분을 경사지게 자른 원추 모양의 지붕은 1960년대 전반, 코르뷔제에 의해 제안되었던 피

르미니 교회(L'église de Firminy-Vert)의 지붕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그림 14>

(1) 실내공간

전정(Parvis)을 통과하여 들게 되는 대예배실은 중앙 홀과 주위의 통로, 사제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대예배실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는 중앙 홀은 큰 원을 그리도록 배열된 기둥들에 의해 주위의 통로와 구별되어 있다. 홀의 상부, 둥그렇게 배열된 기둥 위에는 실내공간을 특징짓는 거대한 원추형 돔(Dome)이 올려져 있는데, 상부로 올라가며 좁아지는 거대한 원추형 돔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소하면서도 장엄한 내부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15> 외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동일한 원추형 돔에 의해 내부공간의 형태가 정의되는 대예배실은 내부와 외부의 형태가 일치되는 보타 건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홀의 원추형 돔의 상부에는 천창이 계획되어 있으며 원형의 바닥은 입구측에서부터 사제영역으로 향하며 낮아지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중앙 홀과 사제영역 사이의 구분은 바닥 높이의 차이에 의해, 바닥재의 차별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제영역으로 인도하는 3단의 계단과 사제영역의 바닥은 흰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홀을 향하여 내민 우아한 둥근 계단은 사제영역을 형태짓는 요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림 16>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보타의 능력은 평면도, 좌석의 배치에서도 보여진다. 평면에서, 홀의 좌석은 사제영역을 중심으로 방사선 상에 배치되어 있다. 계단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배치된 좌석은 원형공간의 형태적 중심과는 다른 또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는데 보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심을 중앙의 축선상에 뮴으로써 중심의 불일치가 가져올 수 있는 무질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그림 17>

(2) 천창과 자연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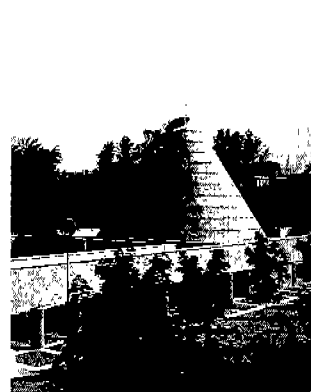
보타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르데노네 교회의 원추형 지붕구조는 실내형태를 특징짓는 형태요소로 되며 동시에 내부공간에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채광수단이 된다. 보타는 중앙 홀 상부에 놓여진 원추형 돔의 정점부분을 사선으로 잘라 개구부를 만들고 그 곳에 천창을 설치하였다. 천창은 개구부의 단면 모양을 따라 타원형 창이 되는데 경사진 창은 북동측 하늘을 보도록 계획되어 하루종일 비교적 고른 일광을 실내에 공급하게 된다. <그림 15> 타원형의 경사진 천창은 또한 내부적으로 그 중심을 제단에 맞추고 있어 예배공간의 구심점이 되는 계단을 강조한다. 천창으로부터 떨어지는 수직의 일광은 예배공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출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제영역의 후면, 앱스(Apse)의 상부에는 지하 예배실에 빛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천창이 계획되었다. 앱스의 천창을 통과한 일광은 지하공간을 밝혀줄 뿐 아니라 반원형 둥근 벽을 비춰주게 되는데 계단을 향하도록 배열된 회중석의 시선은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신비한 빛을 보며 종결되게 된다. <그림 16>

(3) 형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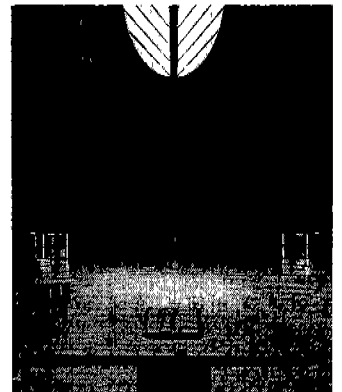
공간의 수평을 한정하는 사각상자형 벽과 수직을 한정하는 원추형 지붕에 의해 대체적 형태가 정의되어지는 포르데노네 교회의 대예배실은 외부로 돌출된 앱스의 반원 벽과 사제영역의 둥근 계단에 의해, 큰 원을 그리도록 배치된 내부 기둥에 의해 세밀한 형태를 부여받게 되며 더 나아가 제단과 설교대, 성수반 등 건축화된 가구요소에 의해 형태적으로 풍성한 실내가 되게 된다. 특히 축선상에 놓여진 'T'자 모양의 제단이나 네모상자를 비스듬히 엮어놓은 듯한 설교대, 낮은 원통 모양의 성수반은 흰색 대리석으로 깎은 간결한 기하학적 조각품으로 공간의 조형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그림 16> 보타 실내의 조형요소로서 공간에 노출된 내부 기둥을 빼 놓을 수 없다. 중앙 홀과 주변 통로를 구분하며 주두 위에 돔 지붕을 엮도록 의도된 원형기둥은 거대한 돔 지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늘게 보여지는데 육중한 지붕구조를 떠받치는 가는 기둥은 묘한 조형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4) 재료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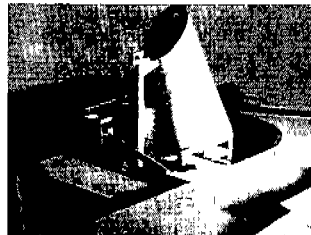
공간의 형태 면에서 전통적 교회와 차이를 보이는 포르데노네 교회의 대예배실은 벽돌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재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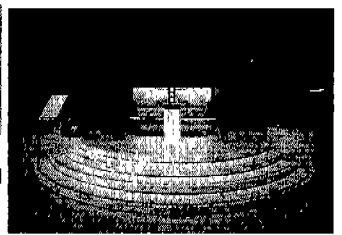
<그림 13> 포르데노네 교회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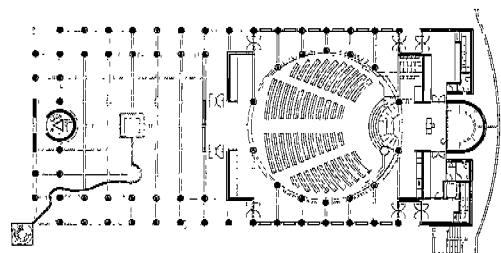
<그림 15> 포르데노네 교회 중앙홀



<그림 14> 피르미니 교회 모형



<그림 16> 포르데노네 교회 사제영역



<그림 17> 포르데노네 교회 평면도



관한한 전통교회의 속성을 이어받고 있다. 돔 천장과 벽, 기둥면의 대부분을 채우는 갈색 벽돌은 실내의 색상을 주도하는 재료로서 수직이 강조된 대예배공간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준다. 중간 명도의 갈색 벽돌에 의해 지배되는 대예배실은 사제영역 바닥과 양측 측면에 사용된 흰색 대리석 및 암색 대리석에 의해 색조의 단조로움을 벗겨내며 변화를 부여받게 된다. 재료의 관점에서 대예배실의 특성은 내부기둥 위에 올려진 콘크리트 보에서 찾을 수 있겠다. 둥글게 배치된 기둥을 따라 큰 원을 그리도록 되어있는 콘크리트 보는 원추형의 돔을 얹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마치 커다란 반지(Ring)를 올려놓은 듯 보인다. <그림 15> 흰색 대리석 조각을 이용한 중앙 홀 바닥의 패턴은 베니스 풍의 도로포장 패턴을 응용한 것으로 그 방사형 패턴의 중심을 사제영역에 두고 있어 그 곳이 예배공간의 중심이 됨을 강조해 준다.

### 3.5. 샌프란시스코 모던 아트 뮤지엄

간결하고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요소들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형태를 이끌어내었을 뿐 아니라 벽돌이 갖고 있는 표현성을 충분히 활용한 샌프란시스코 모던 아트 뮤지엄(Museum of Modern Art in San Francisco, 1989)은 공공건축을 보는 보타의 건축관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보타는 박물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도시형태 안의 지속적 참조점'<sup>36)</sup>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벽돌로 지어진 육중한 사각형 볼룸과 중앙부의 원통형 구조, 다양한 벽돌쌓기 기법으로 요약되는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은 보타의 이 같은 주장을 잘 설명해 준다. 외관상 두 개의 형태요소, 사각상자형 볼룸과 원통형 볼룸은 각각의 형태적 특성을 선명히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재료와 색상, 패턴으로 마감되어 있다. <그림 18>

#### (1) 실내공간

하부, 사각상자형 공간과 상부, 원통형 공간을 합성한 방식으로 포르테노네 교회 중앙 홀의 공간구성공식을 반복한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의 포여는 같은 구성공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앙 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실내를 선보이고 있다. 물론 대지의 여건과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보타는 포르테노네 교회의 납작한 상자형 공간을 제법 높이가 있는 상자형 공간으로, 원추형 보이드를 원통형 보이드로 치환함으로써 수직성이 더욱 강조된 새로운 이미지의 실내를 창조하였다. <그림 19> 보타 실내의 위대성은 이 같이 자신이 정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언어들(재료, 색상, 패턴)을 종합하여 작품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형태를 이끌어내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의 원통형 구조는

포르테노네 교회의 원추형 지붕구조와 같이 잘려진 그 곳에 천장을 두고 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뮤지엄이 수평적 비례를 분명히 하는 것과는 반대로 방문자들은 포여에 들어와서 샌프란시스코 도심공간의 수직적 비례를 다시 만나게 된다.

#### (2) 천장과 채광

외관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요소로서 뿐 아니라 실내의 형태를 정의하는 요소로서, 일광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포여 상부, 원통형 보이드는 포르테노네 원추형 돔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양의 일광을 모아 수직으로 뿌리도록 되어있다. 형태 특성상 원추형 천장구조가 천창으로부터 받은 일광을 넓게 확산시키는 것과는 달리 원통형 구조는 천장을 통해 받은 일광을 집중시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통형 보이드를 통해 수직으로 공급된 일광은 포여 공간의 수직성을 강조해 주는 한편 실내에 특별한 조명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그림 19> 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빛을 받아 빛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 브리지와 캔틸레버 계단, 원형기둥 등의 요소는 측창을 통해 밝혀지는 평범한 실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또다른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통 구조물의 절단면에 설치된 커다란 타원 천창 역시 외관과 실내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포여에서 커다란 천창을 통해, 마치 옥외공간에서와 같이, 기상의 변화와 태양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 (3) 형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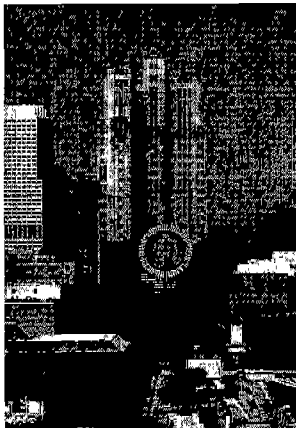
뮤지엄의 포여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원통형 구조를 떠받치는 높은 기둥과 허공에 떠있는 듯한 캔틸레버 계단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 가늘고 긴 원형기둥을 따라 시선을 아래로 옮기면 대강당으로 인도하는 육중한 입구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두 개의 안내 카운터가 중심을 잡고 있다. 실내를 풍요롭게 하는 이들 요소들은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형태적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천장의 보이드와 기둥, 안내 카운터 등이 원형으로 디자인된 반면 입구 구조물과 캔틸레버 계단은 사각형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 <그림 19> 에서, 빛으로 충만한 원형 보이드를 배경으로 허공에 떠있는 듯 표현된 사각의 캔틸레버 계단은 두 요소 사이의 형태적 대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이드 부분을 올려보게 되면 빛을 가르고 허공을 건넌 듯 한 철제 계단을 볼 수 있다. 원래 캔틸레버 계단이나 전망 브리지, 독립적인 원기둥 등은 꼬르뷔제가 즐겨 사용하던 건축적 어휘로 보타는 이들 어휘들을 자신의 감각과 공간에 맞도록 형태와 비례, 무게 등을 지체롭게 고쳐 사용하고 있다.

#### (4) 재료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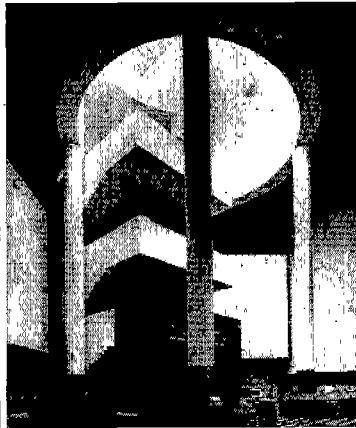
하얗게 칠하여진 벽과 검정색 화강석 바닥의 대비가 선명한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의 포여는 현대적 감각의 단정한 실내로 표현되었다. 보타는 흑과 백의 대립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정

36)Pizzi, Op. cit., Vol.2, p.246.

색으로 목재의 밝은 갈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밝은 색 목재는 흰 벽과 검정 바닥 사이, 벽의 하부에 적용되었다. 원형 카운터의 배경이 되어주는 육중한 입구는 바닥과 같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른 듯한 조형적 감각을 보여준다. 검정색 화강석에 적용된 수평띠 패턴은 리고르네토 주택의 외벽에서 선을 보였던 패턴으로 공공건물 실내의 대리석이나 화강석에 적용되면서 보타의 실내를 특징짓는 패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같은 맥락의 수평띠는 목재로 제작한 원형 카운터에서도 보여지는데 수평띠 패턴은 수직이 강조된 포여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되어준다. <그림 19>



<그림 18>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외관








<그림 19>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포여

#### 4. 종합분석

칸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공공건물이 기본 볼륨을 축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정형화된 공간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보

<표 1> 보타 공공건물의 실내특성

	실내공간	천창, 봉구조	형태요소	재료, 패턴
모르비오 인페리오레중학교 중앙갤러리	· 직선 축선상에 배열된, 오픈스페이스를 갖는 기본볼륨. · 개구부를 갖는 벽체에 의해 끊어질듯 이어지는 갤러리의 시각효과.	 역삼각형 단면 스케치	· 개구부쪽 갖는 독립적인 벽. · 계단판의 경사를 따라 절개된 계단 측면. · 자립하는 벽.	·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 소란반사 패턴 콘크리트 바닥판이 노출된 천장.
카우킨 도서관 중앙홀	· 납작한 육각형 모양의 평면. · 천창을 통해 일광을 제공받는 2층 높이의 밝은 지하 공간.	 삼각형 단면 스케치	· 노출된 원기둥. · 아래층 자립벽과 일체로 디자인된 난간벽.	· 노출 콘크리트 표면. · 하얗게 칠한 시멘트 블록벽. · 연직으로 패어진 흙. · 콘크리트 지붕판 패턴이 노출된 천장.
고타르도 은행 영업장	· 영업장의 수평공간과 삼각형 모양으로 절삭된 수직 보이드의 교차.	 삼각형 3D 스케치	· 노출된 원기둥. · 낮은 원통 모양의 카운터. · 안정된 비례의 정면벽.	· 대리석, 우드패널 등 고급스러운 마감재 사용. · 색상이 다른 대리석 사용, 수평띠 형성. · 목재 카운터의 수평띠.
포르데노네 교회 중앙홀	· 낮은 사각상자형 공간과 원추형 천장구조가 합성된 형태의 공간.	 원뿔 3D 스케치	· 독립된 원기둥. · 계단, 설교대, 성수반 등 건축화된 가구. · 둥근 계단.	· 벽들의 패턴을 솔직히 표현. · 흰색 대리석으로 마감된 사제영역, 가구요소. · 흰 대리석 조각 이용, 방사형 바닥패턴.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포여	· 3층·높이로 높아진 사각상자형 공간과 원통형 보이드가 합성된 형태의 공간.	 원기둥 3D 스케치	· 수직의 원형 기둥. · 켈달레버 계단. · 전망 브리지. · 낮은 원통형 카운터.	· 표면이 다르게 처리된 화강석 이용, 수평띠 형성. · 목재 카운터의 수평띠.

여준 것과 비교하여 80년대 후반에 계획된 공공건물에서는 기초적인 형태요소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에 도달하고자 한 시도가 뚜렷이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작품마다 새로운 형태가 적용되는 천창이나 지붕구조 역시 보타의 실내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는 의미있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재료의 측면에서,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킨 초기의 단순한 방식은 조적기법과 패턴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변화를 받게 되었으며 은행의 실내를 계획하면서부터 대리석이나 우드 패턴과 같은 고급스런 마감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5개 작품의 실내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

#### 5. 결론

공공건축의 설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던 보타는 자신의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의 실내에서 일반적인 건물의 실내에서는 만날 수 없는, 조형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보타의 공공건축 실내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구성, 간결한 기하학적 요소들을 합성한 형태, 조적공사의 기교를 존중하는 벽면 등 그의 건축 외관이 지니는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포르데노네 교구 교회나 샌프란시스코 모던 아트 뮤지엄에서와 같이 사각상자형 공간과 원추 또는 원통형 천장구조가 합성된 실내, 중심축을 기준으로 계단이나 원기둥, 브리지, 카운터 등의 요소가 대칭으로 배치된 실내, 중심영역 상부의 천창으로부터 빛을 제공받는 실내에서 사람들은 조형적으로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정중하고 기품있는 건

축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보타 건축의 외관과 내부의 차이는 벽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외벽과 내벽 모두 조적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교를 존중하고 있지만 내벽은 장식으로 채워진 외벽과 같이 화려하지 않으며 단정한 편이다. 보타의 실내는 벽면의 장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형적인 건축공간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독립된 기둥이나 자립하는 벽, 계단 등 건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공용공간을 분석하여 확인한 보타 건축의 실내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구성적 특성

- ① 대칭의 원칙이 적용된 정중하고 기품있는 실내.
- ② 두터운 벽에 의해 한정되며 강한 중심을 갖는 실내.
- ③ 중심영역 상부에 계획된 천창을 통해 빛을 제공받는 실내.

B) 조형적 특성

- ① 외관과 내부공간의 형태의 일치.
- ②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요소의 합성을 통한 실내형태 정의.
- ③ 지붕구조와 천창을 연계, 채광수단을 조형요소로 발전시킴.
- ④ 계단, 원형기둥, 자립하는 벽, 브리지 등 꼬르뷔제의 어휘를 발전시켜 사용함.
- ⑤ 자신의 건물을 닮은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의 고정가구를 형태요소로 활용함.

C) 재료, 패턴의 특성

- ① 조적과정에서 생성되는 패턴을 솔직히 표현.
- ② 색상 또는 표면 처리가 다른 석재 이용, 수평띠 패턴 활용.

보타의 실내는 많은 부분을 꼬르뷔제를 비롯한 세 사람의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타가 독창적인 실내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스승들로부터 이어받은 원칙과 어휘들을 자신의 창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조형적 감각에 맞추어 발전시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칸과 유사한 방법으로 천창을 사용하고 있지만 천창의 위치를 공간의 중심으로 옮겨오며 천창을 지붕구조와 연계하여 실내형태를 지배하는 조형요소로 발전시킨 예나 켄틸레머 계단, 기둥, 브리지 등 꼬르뷔제의 어휘를 사용하되 대칭의 틀에 맞추어 자신만의 기품있는 실내를 이끌어낸 예는 위의 사실의 좋은 예라 하겠다. 보타가, 칸이 말한 것과 같이, '경이의 감각'을 가지고 과거 건축을 돌아본 작가라는 사실은 그의 실내공간 분석을 통해서도 이 같이 증명이 된다.

그림 출처

그림 1, 2, 5, 6, 11 : 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1, Zurich : Artemis, 1993  
 그림 3 : Giurgola, Romaldo, Louis I. Kahn, Barcelona : Editorial Gustavo Gili, 1979  
 그림 4 :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oy : A.D.A. Edita, 1984

그림 7 :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 기문당, 1992  
 그림 8 : A+U, Mario Botta, 편집부 편역, 서울 : 집문사, 1997  
 그림 9, 10, 12 : GA Document Vol. 22  
 그림 13, 15, 16, 17 : 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2, Basel : Birkhäuser, 1994  
 그림 14 :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르 꼬르뷔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 집문사, 1991  
 그림 18, 19 : Molinari, Luca ed., Mario Botta / Public Buildings, Milan : Skira, 1998

참고문헌

1. Giurgola, Romaldo, Louis I. Kahn, Barcelona : Editorial Gustavo Gili, 1979
2. Huse, Norbert, Richard Meier Museum für Kunsthandwerk Frankfurt am Main, Berlin : Ernst & Sohn, 1985
3. Jodidio, Philip, Mario Botta, Köln : Taschen, 1999
4. Molinari, Luca ed., Mario Botta / Public Buildings, Milan : Skira, 1998
5. 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1, Zurich : Artemis, 1993
6. Pizzi, Emilio ed., Mario Botta / The Complete Works, Vol.2, Basel : Birkhäuser, 1994
7.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oy : A.D.A. Edita, 1984
8.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르 꼬르뷔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 집문사, 1991
9.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 기문당, 1992
10. 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 태림문화사, 1988
11. A+U, Louis I. Kahn, 이강훈 역, 서울 : 도서출판 감을, 1985
12. A+U, Mario Botta, 편집부 편역, 서울 : 집문사, 1997
13. GA Document Vol. 22

<접수 : 2001. 7. 28>